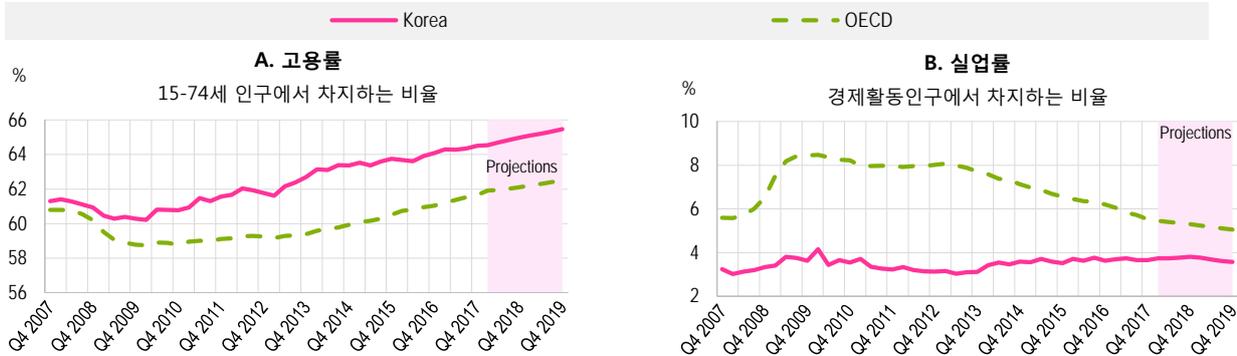


# 고용 전망 2018

2018년 7월

DOI: [10.1787/empl\\_outlook-2018-en](https://doi.org/10.1787/empl_outlook-2018-en)

## 대한민국의 고용과 실업 추이



주: OECD 가중 평균.

출처: OECD가 2018년 6월 발표된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 (No. 103)에 근거해서 계산.

### 최근 노동시장 추이 및 전망

OECD 회원국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이 계속 호전되어, 2018년 1분기 OECD 평균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최고 고용률보다 2% 포인트 높다. OECD 회원국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2018년과 2019년에도 계속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7년 4분기 기준 연간 실질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0.6%로 실망스러운 정도로 낮은 수준인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슷한 실업률을 보인 시기의 임금 상승률보다 거의 1% 포인트 낮은 것이다.

- 최근 대한민국의 고용이 빠르게 둔화되어 노동시장 상황이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되어,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실업이 낮게 유지되어 왔다.
- 2018년 1분기 15-74세의 고용률은 64.5%로 OECD 평균보다 약 2.6% 포인트 높다. 2018년 1분기 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 여섯번째로 낮은 3.7%를 나타내는 등 지난 10년간 3.5%에서 4.5% 사이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 일자리의 질과 노동시장의 포용성 측면의 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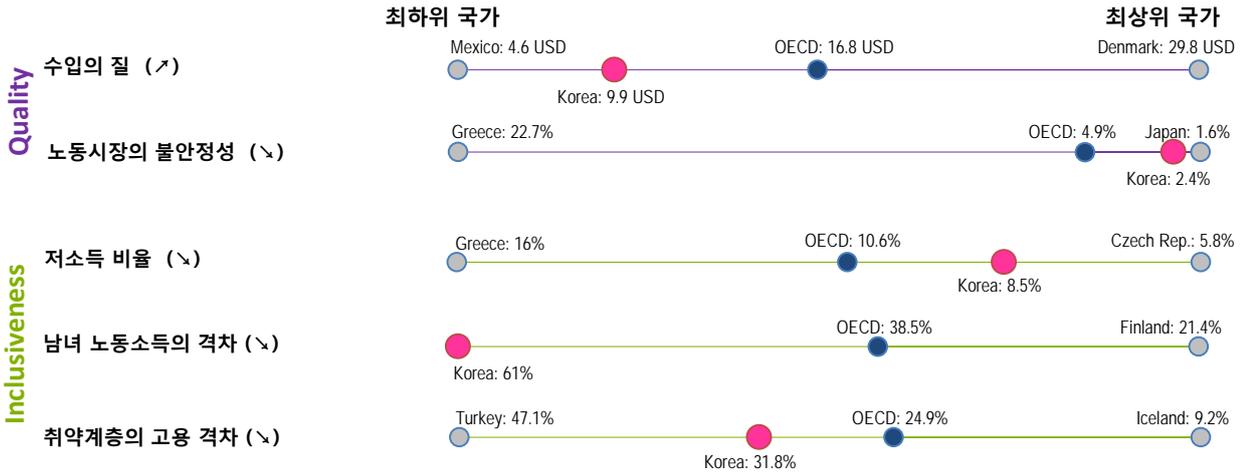
OECD의 일자리 질과 포용성 지표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지표간 혼합된 추세를 보인다. 지난 10년 동안, 노동소득의 남녀간 격차의 감소,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격차의 감소, 및 일자리에 대해 느끼는 부담 (사용 가능한 자원은 불충분한 반면,

요구는 과도한 정도)은 개선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근로연령 인구의 빈곤도 증가했다.

-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일자리의 질과 포용성에 대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는 강한 성과를 보인 반면,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도 약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대한민국은 실업의 위험이 낮고 실업 기간이 짧아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지표에서 특히 강한 성과를 보였다. 저소득 가구에 속한 근로연령 인구의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낮다.
- 반면,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임금과 높은 임금 불평등으로 인해 수입의 질에 대한 지표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 임금 불평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큰 격차를 초래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기인한다.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와 영세 소기업에 많은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결합되어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청년 니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핵심 근로연령 남성 근로자와의 고용률 격차가 OECD 평균보다 높다. 가장 두드러진 취약점은 남녀간 노동소득 격차 지표에서 나타나는데, 그 격차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크다.



## 일자리의 질과 노동시장의 포용성: 2016-2017년 대한민국의 핵심 지표



주: 지표의 상방향기(하방향기) 화살표는 높은(낮은) 수치가 더 높은 성과를 나타냄. 수입의 질(Earnings quality): 소득의 불평등을 조정하여 미국 달러로 표시한 총시간당 수입. 노동시장의 불안정성(Labour market insecurity): 실업의 가능성과 예상되는 실업 기간을 고려하여 종전 수입 대비 실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순소득 손실. 저소득 비율 (Low income rate): 중위 가치분 소득 가구의 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근로연령 인구의 비율. 남녀 노동소득 격차 (Gender labour income gap): 남녀 1인당 평균 연간 소득의 격차를 남성 평균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 취약계층 고용률 격차 (Employment gap for disadvantaged groups): 핵심 근로연령 남성과 취약계층 (자녀가 있는 여성, 청년 니트, 55-64 세 근로자, 비원어민, 장애인)의 평균 고용률 격차.

데이터 출처 및 정의: OECD 가 다양한 출처로부터 2017 년 또는 활용 가능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 보다 자세한 사항은 [OECD Employment Outlook 2018](#), Ch. 1 참조

### 남녀간 노동소득 격차가 전체 근로 생애를 통하여 증가한다

2015 년 OECD 회원국 여성의 연간 노동소득은 여전히 남성의 연간 노동소득 보다 39% 낮다. 이 격차의 대부분은 직업 경력의 전반부에서 생기는데, 간헐적인 고용과 자녀 출산을 전후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곤란하여 발생한다. 노동시장에 복귀하여 다시 취업하는 여성은 주로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남녀간 임금의 격차와 승진 기회의 격차를 초래한다.

- 2013 년 대한민국 여성의 연간 노동소득은 남성의 연간 노동소득보다 61% 작아 그 격차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크다.
- 남녀간 연간 노동소득 격차는 주로 고용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2017 년 남성의 76.3%가 취업한 반면, 여성의 56.9%만이 취업을 했다. 매우 긴 노동 시간과 아버지가 주된 소득원이라는 인식 등 문화적 요소들로 인해 어린 자녀를 가진 여성들이 노동시장 참여를 줄인다. 여성들은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다음 자녀가 성장한 후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 소수의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다

실업급여는 미취업자를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연결시키는 가장 주요한 수단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전체 구직자의 1/3 보다 적은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한 이후 초기에는 회원국 정부들이 실업급여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실업급여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추세가 자주 나타났다.

- 대한민국의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인 “유사 적용률” (pseudo-coverage rate) 이 2007 년 31%에서 2014 년 38%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인 58% 보다 낮은 수준이다.
- 대한민국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낮은 것은 2 층 사회보장인 실업부조 제도가 없고 다른 회원국과 비교해서 매우 짧은 최대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낮은 것도 실업급여 수급률이 낮은 이유이다.

연락처: 하형소 (+33 1 45 24 16 35; [hyeongso.ha@oecd.org](mailto:hyeongso.ha@oecd.org)),  
 Duncan MacDonald (+33 1 45 24 82 24; [duncan.macdonald@oecd.org](mailto:duncan.macdonald@oecd.org)) or  
 Andrea Bassanini (+33 1 45 24 90 32; [andrea.bassanini@oecd.org](mailto:andrea.bassanini@oecd.org))  
 고용노동사회국.